

한국 시조문학의 존립기반과 그 본질에 관한 시고*

류 해 춘**

〈국문초록〉

시조는 한국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장 잘 지닌 우리 민족의 정형시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도 시조가 과거처럼 우리 문화에서 한국의 정형시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조의 존립기반에 대한 탐구를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본고는 첫째로 민족문화로서 시조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을 살펴보고, 둘째로 국어교육으로서 시조가 지닌 역사적 지평인 주체성을 수행시키는 정책과 그 학습현장을 살펴보고, 셋째로는 창작되는 현대시조가 지닌 현대시로서의 독창성을 찾아내어서 각각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규명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21세기 시조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그 존재기반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시조에 관한 실용적 가치와 다양한 이해의 길을 온당하게 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핵심어 : 인문학, 인문교육, 정형시, 정체성, 주체성, 독창성, 현대시조, 민족문화, 국어교육

* 이 논문은 '생활문학으로서의 시조'라는 주제로 제33차 한국시조학회 학술발표대회(인천대학교, 2002년 6월 1일(토))에서 주제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집고 고친 것임을 밝혀 둔다.

** 성결대

1. 서론

21세기에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 정보문화, 영상문화, 지식문화가 성행하여 인문학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한다.¹⁾ 고려말에서부터 21세기초인 현대에 이르기까지 700여 년에 걸쳐서 한국의 정형시로서 중요한 한 갈래를 맡아왔던 시조도 그 존립기반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대시조이든 고시조이든 시조는 한국의 정형시로서 우리 문화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한국인의 정신과 그 미의식을 훌륭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의 시조는 한국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장 잘 지닌 우리의 정형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조가 21세기에든 과거처럼 우리 문화에서 한국의 정형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해 어느 누구도 간략하고 명료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시조가 지니고 있는 민족문화로서의 측면²⁾과 정책으로서의 국어교육의 문제³⁾, 그리고 현대시조로서의 창작문제⁴⁾ 등이 다양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조의 존립기반은 문화연구, 국어교육, 시조창작 등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각기 다른 영역에서 많은 전문적인 실적을 축적하여 왔다. 그러나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1) 인문학의 위기와 그 진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인문비평(창간호)』(월인, 2000.10.)에서는 「우리 나라 인문학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 아래 인문학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여 대담을 가졌다.

2) 김학성, 『한국 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02. 고전문학연구회, 『국문학과 문화』, 월인, 2001, 참조.

3) 김선배, 『시조문학 교육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1998, 참조.

4) 임종찬, 『현대시조작품을 통해 본 창작상의 문제점 연구』, 『시조학논총』 제11집, 1995.

김제현, 『현대시조작법』, 새문사, 1999, 참조.

시조문학의 존립기반에 관한 검토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각 영역의 탁월한 업적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의 시조에 나타난 각 영역에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시조가 지닌 각 영역의 전체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시조의 존립에 대한 파악과 그 검토가 더욱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 되었으므로 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민족문화, 국어교육, 현대시의 세 가지 측면을 검토하여 한국시조문학의 존립기반과 그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는 민족문화로서 시조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⁵⁾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하며, 둘째로는 국어교육으로서 시조가 지닌 주체성⁶⁾을 수행시키는 정책과 그 학습현장을 살펴보고자 하고, 셋째로는 오늘날 창작되는 현대시조로서의 특성인 독창성⁷⁾을 찾아내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규명해내고자 한다.

세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각각은 시조문학의 존립에 있어서 상호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이해할 때 비로소 시조의 존립기반은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측면의 이해는 다른 측면의 이해에 디딤돌이 되게 하고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어 시조의 존립기반과 그 실용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 철학연구회 편, 『근대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 1998, 철학과 현실사.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00, 참조.

6) 탁석산, 『한국의 주체성』, 책세상, 2000, 참조.

7) 현대시조는 고시조와는 다른 현대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시조는 현대의 자유시와는 다른 시조의 특성인 정형시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현대시조의 특성을 고시조와 현대시와는 다른 독창성이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김학성, 「시조의 정체성과 그 현대적 변환 문제」, 『시조학논총』 제17집, 2001, 참조)

2. 민족문화로서의 정체성

한국의 민족문화는 음악, 미술, 문학, 민속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20세기까지 서구 문명의 근대성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고 있는데 비해 시조문학은 현대에도 연면히 계승이 되고 있어 그 생명력이 한없이 길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시조가 전승되어 온다는 사실은 시조의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꾸어온 정형시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면면히 창작한 정형시는 크게 한시와 시조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한시는 오언(五言)이나 칠언(七言)의 절구(絶句)나 율시(律詩)가 가장 보편적인 정형시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정형시인 한시가 시조로 전이되어 불리어 지기도 하였고, 시조가 한시의 악부 형태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은 표기문자를 달리하는 두 장르를 넘나들면서 정형시인 시조와 한시를 동시에 즐기기도 하였다. 가도(賈島)의 「심은자불우(尋隱者不遇)」라는 유명한 시를 시조로 읊은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⁸⁾

① 松下問童子 言師採藥去
只在此山中 雲深不知處

② 술알익 아히들아 네 얼은 어더가노
藥키러 가시니 허마 도라 오렷마는
山中에 구름이 겹후니 간곳 몰라 흐노라

한시인 ①을 시조로 노래한 ②는 원시의 제1행과 제2행의 의미를 각각 초장과 중장으로 노래하고, 제3행과 제4행의 의미를 합쳐서 시조의

8) 정병욱, 『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2. 참조.

종장으로 노래하는 기법을 보이고 있다. 표의문자인 한자어로 창작한 음수율의 정형시를 표음문자인 한글로 번역하고 한 행이 4음보율과 3장 형식의 정형시인 시조의 틀에 맞추는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한시의 정형성은 시조가 정형성을 지니면서 지속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한시와 시조가 조선시대에는 서로 표기문자를 달리하면서 우리의 정형시로 계속 지속해 왔다. 사대부들은 한시를 통해서도 노래하기가 어려웠지만, 시조를 통해서도 시와 노래를 병행할 수 있었기에 두 가지 정형시를 함께 즐겼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형시이지만 한시와는 변별력을 지닌 시조는 민족문화로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여기서는 시조에 나타난 민족문화로서의 정체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까지 시조는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지만 크게 양식, 사상, 연행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조문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한국시조문학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작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민족 문화의 기본전략이 되다시피 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⁹⁾라는 관점에서 시조를 분석하여 보면, 시조는 한글로 된 한국 고유의 정형시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시조는 3장 6구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고려말엽에 발생하여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면면히 그 장르를 이어오고 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우리 민족이 소유하고 있는 시조형식과 같은 정형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조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시조문학의 정체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시조의 각 작품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성을 찾아나가야 한다. 만약 그런 공통의

9) 장-피에르 바르니에(주형일 옮김), 『문화의 세계화』, 한울, 2000, 참조.

특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시조의 정체성이 되고 다른 문학과 구별되는 주체성이 될 것이다. 시조의 각 작품들을 평시조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면 한국의 시가문학사에서 시조는 '3장 6구(45자 내외)'의 정형시라는 형식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시가인 향가, 고려가요, 경기체가, 가사 등과 변별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고려말엽부터 사대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향유되기 시작한 시조는 성리학에 조예가 깊고 유학과 예악을 중요시하며 유교적 정치이념을 실천하려는 사대부들이 시조문학을 통하여 인간의 성정을 교화하거나, 자연을 매개로 하여 성리학의 사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백설이 즈즌 골에 그림이 머흐래라
반가은 梅花는 어니 곳이 뛰엇논고
夕陽의 호을노 셔셔 갈 곳 몰라 흐노라

이 시조는 '3장 6구(45자 내외)'의 한글로 표현된 정형시의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고려말 이색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 시조는 자연물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매화를 찾는 운치있는 품격을 갖추고 있다. 백설과 구름은 화자가 찾는 매화와 대립적인 것들이다. 백설과 구름 때문에 매화가 더욱 가치 있지만 동시에 그 때문에 매화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매화가 갖고 있는 선비의 풍모를 고려하면 이 시의 화자가 추구하는 것은 매화와 같은 절개와 신선함, 눈 속에 그 빛을 잃지 않는 고결함 같은 정신이 아닌가 추측하게 된다. 이 시조는 '초장에서 현실상황을 제시하고 중장에서 삶의 이상과 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나, 종장에서 삶의 고뇌와 방향상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정형시인 시조의 형식을 빌어 구현해내고 있다.

이렇게 고려말엽의 시조 작가들은 고려의 어지러운 현실을 개혁하려는 데 관심을 가졌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중 얼마는 실제로

조선을 건국하는 주역이 된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에 의하여 새로운 갈래의 시조가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¹⁰⁾ 이 시기에 새롭게 발생하여 개인의 삶과 사상을 표현하기 시작한 시조는 한글로 표현된 정형시로서 우리 민족의 서정장르를 이어오는 대표적인 서정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조선중기의 시조를 통해서 위에서 논의한 서정시와 정형시로서 시조문학이 지닌 민족문화로서의 정체성을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한다.

靑山은 옛데하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옛데하야 晝夜에 굿디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디마라 萬古 常靑호리라 (이황, 도산십이곡)

이 작품은 靑山, 流水 등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불변성을 강조하고 사 람은 마땅히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사대부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 이 시조는 '3장 6구(4음보) 45자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서정시이며 정형시이다.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등이 서정시라는 양식은 시조와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정형시라는 양식을 시조와 함께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조문학은 한국의 민족문화로서 서정시이며 정형시라는 정체성을 획득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조가 한국의 다른 시가 형태들과의 변별성을 지닌다는 것은 바로 서정시라는 문학의 형식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시가들 중에서도 정형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조는 한글로 표현된 정형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내어 온 것이다. 이것이 민족문화로서의 시조가 가지는 주체성이고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들은 시

10) 신연우, 『사대부 시조와 유학적 일상성』, 이희문화사, 2000.

조의 작가론, 작품론, 그리고 독자론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여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줄기 큰 시각에서 본다면 이들 연구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시조가 지닌 한글로 된 정형시로서의 특성과 그 정체성을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국어교육으로서의 주체성

나라의 교육 정책을 세우는 데에는 시대와 사회가 빚어내는 여러 가지 정신과 철학의 힘이 어우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철학의 힘과 정신이 그 나라의 교육정책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난 교육정책의 틀 안에서 국어교육의 정책이 터를 잡는다. 이런 국어교육의 정책은 또 나름대로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 교실이라는 교육현장에서 활동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교육의 정책이 현장에 와서 실현되기까지의 사정을 알기 쉽도록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대정신 → 정책 → 교육과정 → 교재(교과서) → 현장(교실) ← 학생+교사¹¹⁾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이며 정책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단서들은 모두 현장 교육을 뒷바라지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문학교육의 실제 현장은 어디인가? 최근에 국어교육에 대한 연구인력의 확대로 문학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¹²⁾ 그런데 국어교육이나 고전문학교육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11) 김수업, 「교육정책과 국문학교육」, 『국문학과 문화』, 월인, 2001.

12)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88.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문학교육의 탐구』, 국학자료원, 1996.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문학교육의 인식과 실천』, 국학자료원, 2000.

줄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하는 논문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 논문에서는 시조가 지닌 전통을 현재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어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언어사용의 기틀을 마련하는 도구의 영역에서 벗어나 한글로 된 우리민족의 정형시로 민족의 자주성과 고유한 미의식을 지닌 갈래로 앞으로 우리 민족이 향유해 가야 될 역사적 지평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가 국어교육으로서의 시조교육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관심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은 교과서에 실린 시조의 내용을 선정하고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에 실리는 시조를 선정하고 가르치는 내용은 각급 학교(중고등학교)의 사정에 따라 달라야 한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였을 때, 시조는 한글로 표기된 '3장 6구(45자 내외)'의 정형시로서 우리 민족의 생활감정과 사상을 표현한 고유한 장르로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향유해 나가야 한다는데 그 주된 교육목표가 맞추어진다. 이것이 시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으로서의 역사적 지평이며 그 주체성이라 할 수 있다.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지닌 시조가 교과서에 실려 있어야 국어교육으로서의 주체성을 지닌 시조교육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정신과 한국인의 미의식을 잘 담고 있는 시조를 교과서에 실어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시조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조교육 정책을 정부에서는 일관성을 지니고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문학교육학회, 『문학교육의 새로운 구도와 실천』, 태학사, 2000.

한국문학교육학회, 『문학교육의 민족성과 세계성』, 태학사, 2000.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염은열, 『고전문학과 표현교육론』, 역락, 2000.

류해춘, 「21세기초 한국대학 인문교육의 현황과 그 전망」, 『인문비평』 제2호, 월인, 2001.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1.

시조교육의 정책은 시조라는 장르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거쳐 교과서를 통해서 교실현장에서 실현된다. 교실현장에서 실현되는 현장교육은 다음의 3가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시조의 현장교육에서 제기할 수 있는 3가지를 ‘시조를 왜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로 나누고 그 물음에 대답하는 방식¹³⁾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시조를 왜 가르치는가’는 시조에 의한 교육으로 바람직한 사회의 공통의 이념을 형성시키고 이를 통하여 한 개인의 건전한 가치관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전통적으로 시조가 교육과 관련이 깊었다는 것은 퇴계의 <도산십이곡발>에서도 볼 수 있다.

일찍이 이별의 노래를 모방하여 <도산육곡>을 지은 것이 들이니, 그 하나는 지(志)를 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學)을 말한 것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이를 연습하여 노래부르게 하고는 책상에 기대어 들었다.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와 춤을 추게 하니 더러움과 탐욕을 씻고 느낌을 일으켜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래부르는 사람이나 이를 듣는 사람이나 모두 도움이 된다.¹⁴⁾

위의 글에서 퇴계는 시조로써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를 더러움과 탐욕을 씻고 느낌을 일으켜 마음을 서로 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시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 유익함을 그 내용으로 포함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연에 대한 찬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시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천박하고 더럽고 추하고 인색하고 탐욕스런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정서적으로 감정이

13) 김대행, 『문학교육 뜯짜기』, 역락, 2000, 참조.

14) “故嘗略倣李歌，而作為陶山六曲者二焉，其一言志，其二言學，欲使兒輩朝夕習而歌之，憑几而聽之，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庶幾可以蕩滌鄙吝，感發融通，而歌者與聽者，不能無交者益焉”(李滉, <陶山十二曲跋>)

나 느낌을 발동시켜 노래를 부르는 이나 듣는 이가 서로의 마음을 조화롭게 하여 통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서는 퇴계와 동시대의 유학자인 율곡의 〈고산구곡가〉 중 인용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교훈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一曲은 어드리오 冠巖에 히 비훤다
 平蕪에 너 거드니 遠山이 그림이로다
 松間에 綠樽을 노코 벗오논 양 보노라

자연과 도학의 합일을 노래하고 있는 〈고산구곡가〉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 삶의 지향점을 모색하려는 시조이다. 위의 시조는 일곡인 관암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의 경치를 동양화처럼 묘사하고 있다. ‘관암’은 순수한 우리말로 ‘갯바위’가 아닐까? 갯바위에 해가 비치니 매가 걸힌다고 했으니 밤사이 내린 안개가 아침 햇볕에 사라지는 모양을 말한 것이다. 아침에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서 금상첨화로 벗이 갯바위로 온다. 맑은 날, 아름다운 경치, 술과 벗이 있는 경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부족함이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화로운 세계는 퇴계의 〈도산십이곡〉에도 나타나지만 여기와는 차이를 보여준다. 즉 퇴계는 자연의 완벽함에 인간의 불완전함을 대조시켜, 이상적으로는 두 세계의 조화를 추구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립되어 있는 모습을 떠나지 못했다. 그러나 〈고산구곡가〉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경지를 제시하고 있어 정제미와 균제미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¹⁵⁾ 이러한 조선전기의 시대정신은 조선후기로 오면서 사설시조를 통해서 자유분방함의 미학¹⁶⁾을 표출하는 시대정신으로 변하고 있다.

15) 최진원,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대출판부, 1988, 참조.

16) 최준식,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효형출판, 2002, 참조.

이와 같이 시조를 읽으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과 그 미의식을 찾아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일, 나아가 민족의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하고자 하는 주체성을 갖는 일은 시조교육에서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는 교과서에 실린 시조의 내용과 관련이 깊다. 중등학교에서의 시조교육은 시조시인을 양성하는 일이 아니라 학습자의 일상적인 언어사용 능력과 정서적 순화를 향상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의 현장에서는 시조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시조를 통한 글쓰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즉 고시조를 현대어로 고쳐서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고즌 므스일로 꺾면서 쉬이디고
 풀은 어이호야 푸르는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손 바회뿐인가 호노라
 윤선도, <오우가> 중에서

②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풀은 어찌 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건 바위 뿐인가 하노라
 현대어 번역의 예

②는 ①를 현대어로 번역한 시조이다. 고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생소한 고어를 현대어로 표현하면서 언어 자체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시조작품을 감상하고 그 사상을 이해하는 일이 시조교육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시조를 현대어로 번역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거나 현대어로 번역하도록 유도하는 학습의 방법은 어려운 시조의 내용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키는 지름길일 수 있다.

그리고 고시조를 현대어로 고쳐 쓰기는 시조 학습자를 치밀하고 세

밀한 글읽기로 유도하는 기초가 된다. 그리고 고시조를 현대어로 고쳐 쓰는 예는 시조에 대한 기초교육으로 시조의 운율, 구성, 언어, 화자, 의미구조 등 시조를 존립하게 하는 시조의 속성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시조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조가 지닌 문화적 특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시조를 선택해서 학습의 장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 우리의 고시조를 영어나 외국어로 번역하여 학습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③ Why does the flower fall so soon and fast?
Why does the grass grow so quickly brown?
Perhaps what remains unchanged is only the rock.¹⁷⁾

③은 위의 <오우가>를 영어로 번역한 영역시조이다. 이 영역시조인 <오우가>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우리 민족의 특수한 문화를 이해할 것이다. 우리의 정형시인 시조를 영어나 외국어로 번역했을 때 번역된 시조가 외국인에게 정형시로 다가갈 것인가? 우리가 시조를 통해서 체험하는 정서나 감정이 외국인에게서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경험한 정형시로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학습자들은 우리의 정형시인 시조가 영어나 외국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아 다른 나라의 정형시와는 다른 문화에서 성장되어 서로가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쉽게 학습할 것이다. 위의 번역된 영역시조를 통해서도 그 변별력은 영어로 번역된 시조는 3행으로 된 자유시이지 정형시라고 할 수 없다는 데서 쉽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영어로 번역된 시조는 영어가 모국어인 영국인이나 미국인에게 이러한 형식의 정형시가 없으

17) 김영락, 『영역시조-한시선』, 전망, 2001, 63면.

며, 또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읽었을 때 정형시가 아니고 자유시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시조를 통해 외국문화와 다른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조를 우리 문학사가 낳은 독특한 갈래라고 할 때 지금까지 연구된 시조의 내용을 모두 가르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시조의 실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시조의 양식, 사상, 연행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학습자 스스로 주체적인 사고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습자 스스로가 알고 있는 문학이론으로 시조작품을 꼼꼼하게 읽고 그 느낌과 정서를 자신의 문학적 소양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는 시조를 통한 교육으로 시조 자체의 미적인 표현이나 문학적 상상력, 또는 정신적 이념보다는 학습자의 수용능력과 표현능력을 신장시켜 일상생활에서 풍요로운 언어생활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와 관련된 학습자의 고쳐 쓰기 표현 능력을 살펴보는 시조와 그 패러디 시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고 진 저 늙은 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설워라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

- 정철의 시조,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2-1 수록

매고 든 저 어린이 가방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어른이니 책인들 무거우라
어려서 놀기도 바쁘거든 가방조차 매실까

- 학습자가 협동학습으로 고쳐 쓴 작품

이 활동에서 학습자는 시조의 구성방식이나 표현법을 원용하여 자신의 일상적 체험 세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아래의 담론을 통해서 학습자는 시조에 관심을 유발하고 시조의 의미 구성방식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신의 일상을 간략하게 시조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은 시조의 표현과 구성방식이 우리말의 특성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는가를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는 훌륭한 시조교육이라 할 수 있다.

시조의 현장교육은 한국인의 주체성을 담고 있는 시조를 학생들과 더불어 가르치고 익히면서 주체성 있는 내용을 교육시키고 그것을 실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조문학이 그 질이나 양에서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문학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 모두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옥석을 가리고 재정리하여 합리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때 시조의 참모습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¹⁸⁾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과서에 실릴 만한 작품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과서에 실린 시조의 작품을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국어교육의 길에서는 시조를 가르치면서 예술 또는 국악교육으로서 시조라는 갈래의 주체성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4. 현대시로서의 독창성

21세기에 시조를 존립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반은 오늘날 창작되는

18) 김동준, '시조문학교육의 문제점', 『시조문학론』, 우성문화사, 1981, 참조.

현대시조라 할 수 있다. 이 현대시조는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시조 형식의 실험¹⁹⁾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시조는 고시조의 고정된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 현대인의 미적 감수성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모색의 과정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실험정신에 충실하여 시조의 정체성인 정형시의 요건을 파괴하여 버리면 자유시와의 변별력이 무너지게 되는 반면, 고시조의 정체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구심력의 작용이 지나치면 시조의 본질적 모습에 근접해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현대시조는 개성과 자유로움을 기본적인 시대정신으로 하는 현대인의 감수성을 충족해내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간략하고 정제된 정형시인 시조의 형식으로 극복하여 표현할 때 그 가치를 지닐 수 있다.

현대시조의 특성은 그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현대시의 요건인 독창성과 시조로서의 요건인 정체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데서 성립될 수 있다. 현대시조는 현대시로서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어야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사라진 고시조와 변별되는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또 현대시조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해야 현대 자유시와의 경쟁관계에 있는 현대시조, 정형시로서의 존재이유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창성을 무시하고 주체성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현대인의 미의식에 알맞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 시대착오적 국수주의 혹은 환원주의로 인식되어 그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또한 이와는 다르게 정형시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자유시 쪽으로 기울어지면 현대 자유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현대시조는 고시조의 정체성인 정형시의 전통을 살리면서 그 표현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시조가 노

19) 최남선, '조선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 『조선문단』 5월호, 1926.

최남선, 『백팔번뇌』, 동광사, 1926.12. 참조.

래로 불러졌다면 현대시조는 잊혀지는 시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시조 중에서도 현대음악을 통해 노래로 불러지는 전통을 이어오는 시조가 있다.

성불사(成佛寺)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소리
주승(主僧)은 잠이 들고 객(客)이 홀로 듣는구나
저 손아 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성불사의 밤〉 첫 수

위의 시조는 노산 이은상의 작품으로 가곡으로 불려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 현대시조는 가곡과 서로 어울려 현대음악으로 작곡이 되어 음악성이 풍부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노산 이은상의 시조로 이에 못지 않게 애창곡이 된 작품으로는 〈가고파〉, 〈봄처녀〉 등의 작품이 있다. 그의 시조에 대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노래가 적고²⁰⁾ 낭독성과 음악성이 앞섰다고 평가기도 하지만 현대시조가 현대음악과 결합하여 애창곡이 된 것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시조의 표현형식인 음악과 문학의 통합이라는 점을 빌어서 현대시조에 현대음악을 실어서 노래될 수 있도록 시조를 창작한 것은 현대시조의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시조는 고시조가 갖지 못한 독창성을 갖기에 현대에 시조가 존립해야 할 명백한 이유를 가지며, 현대 자유시가 갖지 못한 고시조의 정체성을 가지기에 자유시와 함께 현대시로서의 독창성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고시조가 갖지 못한 현대시조의 특성을 현대의 자유시와는 다른 사상과 정서 그리고 정형시라는 형식 등을 현대시조로서의 독창성이라는 규정하고 21세기에도 현대시조가 존립할 수 있

20) 이태극, 『시조의 사적 연구』, 이우출판사, 1981, 참조.

는 근거를 살펴보고 있다.

현대시조가 독창성과 창의성을 가졌다 함은 고시조와 달리 열린 형식을 지녔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 열린 형식이라는 것은 주로 시행의 배열에서 그 구분이 자유롭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고시조와 현대시조의 분기점은 바로 이 시행 배열이 자유로우나 아니냐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와 현대의 시대정신이 개성과 자유로움의 추구에 있다면 고시조와 변별되는 현대시조의 독창성은 바로 시행 배열의 개성과 자유로움의 획득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고시조가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세로쓰기로 표기되어 있어 음보와 구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음은 노랫말이 악곡에 실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대시조가 가지는 독창성은 현대시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와 시대정신으로 대표되는 창의성을, 즉 ‘구별 배행²¹⁾이나 음보별 행갈이²²⁾ 혹은 글자별 행갈이’ 등으로 변화시켜 시조라는 정형시의 형식에 담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시조의 시어의 개성적이고 자유로운 배분은 시조가 지닌 정형시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의 시조는 현대시조로서 현대시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시조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옛부터 바닷물에
별난 솜씨로 비졌기에

은은한 솔밭에서
조상맛 화제거리

강릉땅

21) 임종찬, '시조표기 양상연구', 『시조학논총』 제16집, 2000, 참조.

22) 김학성, 앞의논문, 2001, 참조.

초당의 두부
제일강산 재맛일세

〈김좌기, 초당두부〉²³⁾

이 작품은 시조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여 전통적 미학을 살리면서도 행의 자유로운 변형을 통해 시각적인 창의성을 표현하여 현대인의 향수를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현대시조로서 행의 자유로운 변형을 통하여 독창성을 획득하고, 시조의 정체성인 정형시의 형식인 '3장 6구(45자 내외)'를 그대로 살려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켜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처럼 자유시가 아닌 현대시조라는 독창성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세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현대시조는 그 장르의 존립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시조시인들이 자유시와 현대시조를 혼동하지 않고 현대시조를 창작하는 것과 현대의 음악에 실려서 불러지고 애송되는 현대시조를 창작하는 것은 시조문학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현대 자유시와 변별성을 지니면서도 현대인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현대의 정형시로서 독창성을 지닌 현대시조가 많이 지어지기를 바란다.

5.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는 시조문학에 대한 존립기반에 관한 시험적인 연구를 하면서 민족문화, 국어교육, 현대시로서의 가치를 규명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이러한 실용적인 연구에는 관심을 소홀히 하고 각각 시조문학의 특성을

23) 한국시조학회, 『상야탑의 여운』, 백산출판사, 1996.

파악하는 데에 치중하였다는 반성에서부터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시조문학의 존립기반을 민족문화로서의 정체성, 국어교육으로서의 주체성, 현대시로서의 독창성 등으로 규명함으로써 시조문학의 존립기반을 정립하여 그 미래의 가치를 탐색해내는데 정책적인 주춧돌이 될 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가 시조의 존립기반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민족문화로서의 시조, 국어교육으로서의 시조, 현대시조 창작 등에 대하여 각각의 독자적인 특성을 밝혀내는 쪽으로 이루어진 것을 반성하면서, 21세기에는 시조문학을 보다 거시적인 방법에서 바라보고 그 실용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기존의 연구에서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거의 소홀히 하였던 '현대시로서의 시조', '국어교육으로서의 시조', '민족문화로서의 시조'의 상호관계 및 차별성을 각각 정체성, 주체성, 독창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뚜렷하게 밝혀보려고 노력하였다. 21세기의 한국시조문학은 국어교육으로서의 주체성도 지니고 있으며, 민족문화로서의 정체성도 지니고 있고, 현대시로서의 독창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닌 시조들이 모여서 새로운 21세기 시조문학의 역사를 열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21세기 시조문학에 관한 시각을 열어주고 그 존재기반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시조에 관한 실용적 가치와 다양한 이해의 길을 온당하게 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88.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의 세계화』, 삼지원, 1994.
김동준, 『시조문학론』, 우성출판사, 1981.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김영락, 『영역시조-한시선』, 진망, 2001.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출판부, 2002.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문학교육의 탐구』, 국학자료원, 1996.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문학교육의 인식과 실천』, 국학자료원, 2000.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 『인문비평』 제1-3호, 월인, 2000, 2001, 2002.
철학연구회, 『근대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 철학과현실사, 1998.
최진원, 『고시조감상』, 월인, 2002.
최준식,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효형출판, 2002.
탁석산, 『한국의 주체성』, 책세상, 2000.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00.
한국고전문학회, 『국문학과 문화』, 월인, 2001.
한국문학교육학회, 『문학교육의 새로운 구도와 실천』, 태학사, 2000.
한국문학교육학회, 『문학교육의 민족성과 세계성』, 태학사, 2000.
한국시조학회, 『시조학논총』 제16-18집, 2000, 2001, 2002.

〈Abstract〉

The originality in the basis and The Identity in Sijo

Ryoo Hae-Choon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clarify the basis and the substance in Sijo of the fixed form of verse. Sijo has the fixed form of verse in the national identity and the subjectivity of the culture up to now.

To examine problems suggested above, at first in the point of the culture I researched the continuation of Sijo to the fixed form of verse in 21th centuries. And in the point of the education of Korean I classified into the subjectivity. Through the modern poetry I came to find out that the modern Sijo is displayed the originality between the modern poetry and the ancient Sijo today. To sum up I researched the substance and the originality in Sijo in 21th centuries.

In order to study the originality in the basis and the identity in Sijo which have succeeded up to present without interruption, it is to gather more materials, widen an appreciative eye for our culture and deepen the till now study continuously.

Keywords : Culture, Originality, Identity, Subjectivity, Sijo, Fixed form of verse, Ancient Sijo.